

설

화롯불에 情이 익어갑니다

어릴 적 할아버지 방엔 숯이 가득한 화롯불이 있었습니다.

무뚝뚝한 할아버지였지만 손자들이 들어오면 따뜻한 자리를 내주며 반기셨지요. 붉은 화롯불을 뒤적거리며 구워진 밤과 고구마를 꺼내 “옛다 먹어라” 거친 손을 내미셨지요. 동무들과의 들놀이에 지친 아이는 할아버지 무릎을 베고 누웠고 할아버지 옛이야기에 잠이 밀려왔습니다. 화롯불재속 노랗게 밤이 익어가는 사이 아련한 꿈속으로 달려갔지요.

그땐 그랬지요, 화롯불 주위 웅기종기 모여 웃음꽃을

피워가던 우리네 옛 모습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몸도 마음도 할아버지 반 만큼 컸지만 바쁜 외지 생활로 그때 그 시절을 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요맘때 설이 되면, 고향을 생각하면 그 기억이 새록새록 되살아나지요.

지금은 할아버지 그 자리에 부엌데기 우리 엄마가 앉아 계시지요. 엄마였던 그이가 할머니가 되어 손자새끼 옆에 앉히고 고사리 손에 띄이며, 고구마를 쥐어주며 흐뭇해 하시지요. 정하게도 딸 안 들었던 그 아들놈의 새끼들이 무에 그리 귀여운지 어르고 버르고 한없는 사람

을 쏟아 내십니다.

이런 게 사랑이고, 정 아니겠습니까. 세월도 많이 흘렀고 풍습도 달라졌지만 고향의 겨울밤 화롯불 풍경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에서 어머니로, 아버지를 거쳐 다시 손자들에게 유전되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이겠지요. 고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무엇,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이들이 고향을 찾아, 정을 찾아 발걸음을 재촉하는 것이겠죠.

/글=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